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통계개발원



지역인구의 변화: 저출생과 인구이동

황선재 (충남대학교)

- 한국은 2020년을 정점으로 본격적인 인구 축소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그 파급효과 중 현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현상은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로 대표되는 지역 간 인구불균형 문제다.
- 2000년대 들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 및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중소도시인 시(市) 지역의 평균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촌인 군(郡) 지역과 지방 대도시 구(區) 지역의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 2000년 이후 지역 간 인구불균형 문제에 있어 출생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다. 2023년 현재 (초)저출생 현상은 농촌 혹은 도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2000년 이후 합계 출산율 감소는 수도권에서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났다.
- 반면, 지역 간 인구이동, 특히 비수도권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지역 간 인구불균형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동했다. 그 결과 서울(Seoul)과 세종(Sejong)을 잇는 'SS 라인' 주변 지역들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패턴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 지역인구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뿐 아니라 인구 유출의 '인구학적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출생과 인구이동의 주체인 20~30대 청년층의 생애과정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역 정주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통계청 추계인구 기준, 한국은 2020년을 정점으로 본격적인 인구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로 접어들었다. 2020년 5,184만여 명이었던 총 인구는 2070년경 3,718만여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50여 년 전인 1970년 대 중후반과 비슷한 수준이다(통계청, 2023).

이러한 인구감소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현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구감소 및 인구변동의 지역별 차이에 따른 인구불균형 문제다.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로 대표되는 오늘날 한국의 지역별 인구불균형 현상은 국가 균형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관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으며, 현재 전 사회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와 함께 공론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인구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인구축소기 동안에는 과거 인구팽창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역시 지역 중심, 지역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분석은 공식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인구변동 양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현황과 변동을 기초지자

체(시군구)별로 나누어 상세히 검토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출생과 인구가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출생이라는 자연적 요인과 인구이동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오늘날 비수도권 지역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2~30대 청년층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지역인구의 현재이자 미래인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수행해야 할 과업들이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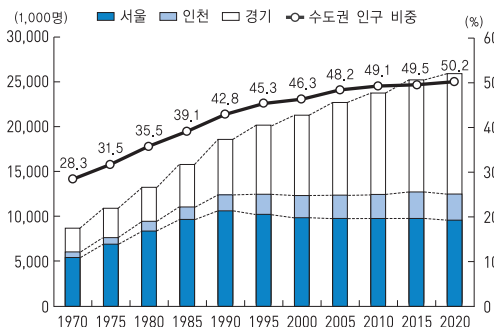
한국의 인구 현황: 수도권 대 비수도권

2000년대 한국 인구현상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 및 팽창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의 인구집중이 새삼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시기별로 살펴보면 그 양상은 다소 차

이가 있다. [그림 I-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대까지의 수도권 인구집중은 주로 서울을 목적지로 이루어졌으나, 90년대부터는 서울의 인구는 줄어드는 와중에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으로의 인구 분산과 집중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수도권 전체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2020년경에는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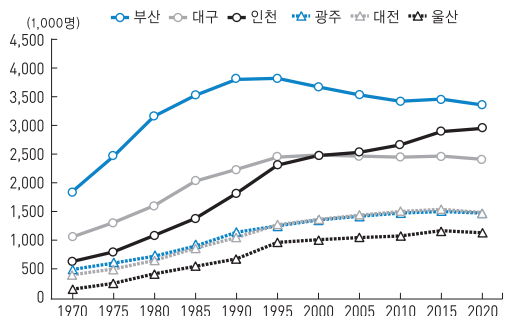
여기서 함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비수도권 광역시, 즉 지방 대도시의 인구변동 양상이다. [그림 I-24]와 같이 2000년대 이전에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더라도, 지방 대도시의 인구성장도 함께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즉, 서울은 언제나, 그리고 여전히 수위도시(primate city)지만, 지역마다 거점도시(hub city) 역시 존재하는

[그림 I-23] 수도권 인구 수 및 인구 비중, 1970-2020



주: 1) 상주 개념의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기준임.
 2) 인천이 경기도 소속이었던 1970~1980년은 경기도에서 인천시 인구수를 분리하여 집계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그림 I-24] 6대 광역시 인구 수, 1970-2020



주: 1) 상주 개념의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기준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1) 인구총조사 2015년 이후 1년 단위 통계로 보면, 2019년(50.0%)에 최초로 절반에 도달했다.



인구 다극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6대 광역시 중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인구감소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지방 대도시가 이제는 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중심성과 기능이 수도권으로 더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구양미, 2021).

그렇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변동은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이는가? 먼저 <표 I-9>는 2000년부터 2023년 사이,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시군구) 지역의 총인구 변동 양상을 주요 기술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 중소도시라 할 수 있는 시(市) 지역의 평균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郡) 지역과 지방 대도시라 할 수 있는 구(區) 지역의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를 앞서 살펴본 지방 대도시 인구감소와 연결시켜보면, 지방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 중소도시의 개발과 함께 지방 대도시 인구(구 지역)가 인접 중소도시(시 지역)로 이동한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지방 대도시의 인구감소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지방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둘째, 시군구 간 인구격차가 증가하는 와중에 시군구 내 인구격차 역시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평균인구의 증감 정도가 보여주는 지역 단위 간 격차 증가 외에도, 표준편차로 측정된 시와 군 지역의 내부 격차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 인구변동의 차별적 양상이 비단 시군구 간에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위 내에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9> 비수도권 지역별 평균 인구, 2000, 2010, 2023

	시	군	구
평균 인구(명)			
2000	222,785	61,170	270,143
2010	240,649	55,317	268,937
2023	248,466	51,132	248,629
'00년~'23년 증감률(%)	11.5	-16.4	-8.0
표준편차(명)			
2000	135,773	27,862	124,605
2010	195,420	33,425	130,962
2023	205,348	39,977	119,064
'00년~'23년 증감률(%)	51.2	43.5	-4.4
지역 수(개)			
2000	49	81	36
2010	48	80	36
2023	50	77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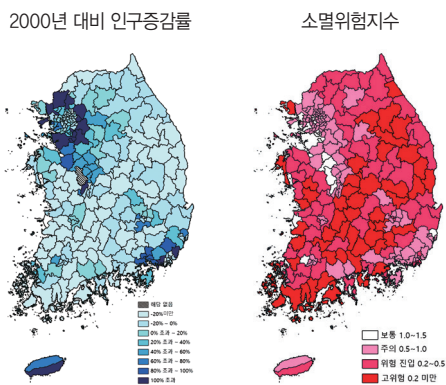
주: 1) 평균 인구는 시군구 단위 주민등록 내국인 수를 산술평균한 값임.
 2) 자치구가 아닌 구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2000년 집계에서 계룡출장소, 증평출장소는 제외함.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다음으로 [그림 I-25]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군구별 인구증감률과 2023년 기준 소멸위험지수를 나타내는 전국 지도이다. 해당 기간 시군구별 인구증감률은 최소 -42.7%(대구 서구)에서 최대 393.3%(경기 화성시)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인구감소를 경험한 157개 시군구 중 대부분이 비수도권 군 지역이거나 대도시 구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소멸위험지수(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0대 여성인구 비율)의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이 소멸위협 '주의' 이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중 서울을 북으로 하고 세종을 남으로 하는 '서울-세종(SS) 라인' 주변 지역의 소멸위협이 집합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인상적이다.

사실을 고려한다면 인구감소율이 높고 소멸위협이 큰 지역에서는 20~30대 청년층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갖는 의미를 지역별 출생과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I-25] 시군구별 인구증감률 및 소멸위험지수,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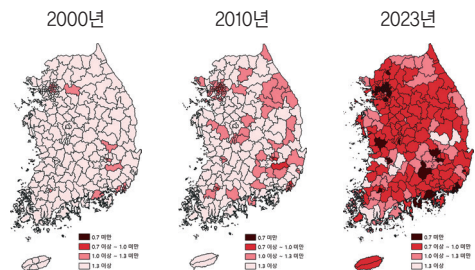


주: 1) 주민등록 내국인 인구 기준임.
 2) 2000년 대비 인구증감률은 승격, 통합 등을 감안하여 비교함.
 - 승격: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당진시, 증평군, 계룡시.
 - 통합: 청주시(-청주시+청원군), 창원시(-창원시+마산사+진해시), 제주시(-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서귀포시+남제주군).
 - 인천 미추홀구(-인천 남구), 대구 군위군(-경북 군위군).
 - 세종시는 인구증감률 분석에서 제외함.
 3)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지역인구와 출생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수도권 전역으로의 인구집중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인구감소율, 소멸위험지수 등으로 측정된 지역인구의 변동은 권역 및 지역별로 차등적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등적 변화의 인구학적 원인은 무엇일까? 본 절에서는 인구변동을 일으키는 핵심 인구학적 요인 중 하나인 출생의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그림 I-26]은 한 지역의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구통계인 합계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의 시군구별 추이(2000, 2010, 2023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26]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2000, 2010, 2023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또한, 인구증감률과 소멸위험지수의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0.70로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역에서 소멸위험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0대 여성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20~30대 여성인구와 20~30대 남성인구의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까운



특징적인 점은 2000년에는 초저출산의 기준이 되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시군구가 36개에 불과했고 주로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10년에는 그 수가 103개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몇 개 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초저출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2023년 현재 초저출산 현상은 농촌 혹은 도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역의 문제이며, 그 시작점과 증가 속도가 도시 지역이 더 빨랐다는 점에서 지역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있어 출생의 역할은 다소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표 I-10>과 같다.

우선 합계출산율 추이의 권역별 차이를 살펴보자. 2000년에는 수도권 시, 군 지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비수도권 시, 군 지역보다 높았으나 2010년에는 그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수도권 시군구 전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비수도권보다 낮게 나타난다. 또한, 2000년 이후의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지역이 더 빨랐으며, 도시 지역인 시 지역의 감소율이 농촌지역인 군 지역의 감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추이는 권역별 평균 출생아 수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인구 규모의 영향으로 태어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더 많으나,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분은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더 많다.

<표 I-10> 지역별 평균 합계출산율 및 평균 출생아 수, 2000, 2010, 2023

	수도권			비수도권		
	시	군	구	시	군	구
평균 합계출산율(가임 여자 1명당 명)						
2000	1.65	1.71	1.31	1.61	1.64	1.37
2010	1.35	1.35	1.07	1.40	1.51	1.11
2023	0.78	0.89	0.58	0.88	0.97	0.69
'00년~'23년 증감	-0.87	-0.82	-0.73	-0.73	-0.67	-0.68
평균 출생아 수(명)						
2000	5,642	1,265	5,057	3,095	671	3,442
2010	4,424	469	3,591	2,308	453	2,288
2023	2,430	216	1,600	1,135	187	1,027
'00년~'23년 증감	-3,212	-1,049	-3,457	-1,960	-484	-2,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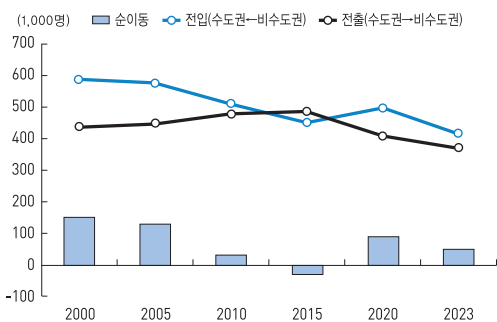
주: 1)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산술평균한 값임.
 2) 자치구가 아닌 구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2000년 계통출장소, 증명출장소는 제외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이를 종합하면 2000년 이후 지역 간 인구불균형 증가 및 지방소멸 문제에 있어 출생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만약 출생이 영향을 미쳤다면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당 기간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집중, 그중에서도 주 출산 연령대인 20~30대 청년층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수도권 인구증가에 출생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오히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23년 현재, 지방소멸 문제의 원인은 출생이라는 자연적 인구증가의 요소 외에 인구이동이라는 사회적 인구증가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인구와 인구이동

2000년 이후 한국의 지역인구 변동과 인구불균형의 원인이 출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은 인구이동, 그중에서도 지역간 인구이동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이철희·황영지, 2022). 본 절에서는 인구변동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이자 오늘날 한국의 지역별 인구변동을 견인하고 있는 지역간 인구이동을 살펴본다. 먼저 [그림 I-27]은 2000년 이후 수도권 이동자수 추이를 전입(비수도권→수도권), 전출(수도권→비수도권), 순이동별로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수도권으로의 전입, 전출, 순이동 모두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며 우하향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2015년을 제외하고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순유입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림 I-27]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이동, 2000-2023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수도권으로의 전입, 그리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출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표 I-11>은 2023년 현재 17개 시도별 상위 전입지와 전출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들어오는 상위 2개 전입지는 수도권에 포함된 다른 2개 지역이며, 수도권에서 나가는 상위 2개 전출지 역시 수도권에 포함된 다른 2개의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3위권으로 확대해 보아도 충남이 포함되어, 수도권으로의 전입 및 전출은 수도권 내에서 발생하거나 수도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접 시도에서 인구가 전입되거나

<표 I-11> 시도별 시도 간 이동 상위 지역, 2023

	전출지		전입지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경기	인천
인천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	인천	서울	인천
중부권				
강원	경기	서울	경기	서울
충북	경기	서울	경기	서울
충남	경기	서울	경기	서울
대전	경기	충남	충남	경기
세종	대전	경기	대전	경기
호남권				
전북	경기	서울	경기	서울
전남	광주	경기	광주	경기
광주	전남	경기	전남	서울
제주	경기	서울	서울	경기
영남권				
경북	대구	경기	대구	경기
경남	부산	경기	부산	경기
대구	경북	경기	경북	서울
울산	부산	경북	부산	경북
부산	경남	서울	경남	서울

주: 1) 시도 내 이동은 제외하고, 시도 간 이동을 대상으로 함.

2) 음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3년.



나 인구를 전출시키는 양상은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나,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경우 상위 2개 전출지 목록에 서울, 경기, 또는 인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다(울산 제외).

추가로 2023년의 시도별 순이동률(인구 100명당 순이동자수(전입자수-전출자수))을 살펴보면 인천(1.1%), 충남(0.7%), 세종(0.4%), 경기(0.3%), 충북(0.2%) 등 5개 지역에서는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은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특히 광주(-0.6%), 울산(-0.6%), 경남(-0.5%)의 인구 유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소멸위험지수에서 '서울-세종(SS) 라인' 주변 지역의 상대적인 소멸위험 가능성이 작게 나타난 이유가 이 지역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역 간 순이동률을 권역 및 지역별로 나누어 제시한 <표 I-12>를 살펴보자.

먼저 해당 기간 수도권 지역은 구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순유입(전입자 수)전출자 수)을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023년 군과 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 전 시점에서 순유출(전입자 수<전출자 수)을 기록했다. 권역과 지역에 관계없이 순이동률의 절대적인 크기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어 지역별 인구변동에 인구이동이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간 권역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난 순이동률의 일관적이고 누적적인 패턴은

2023년 현재 지역별 인구구조와 분포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12> 지역별 평균 순이동률, 2000, 2010, 2023

	(%)		
	시	군	구
수도권			
2000	2.78	1.98	-0.21
2010	1.89	1.00	-0.82
2023	0.30	0.70	-0.04
비수도권			
2000	-0.66	-1.86	-0.85
2010	-0.06	-0.08	-0.76
2023	-0.03	0.11	0.01

주: 1) 시군구별 순이동률을 산술평균한 값임.
 2) 순이동률=(전입자 수-전출자 수)/연앙인구*100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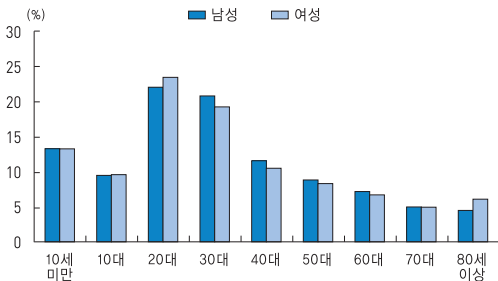
지역인구의 현재와 미래: 청년

2000년 이후 지역인구의 변화를 출생과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오늘날 지역인구의 현재를 결정짓고 있는 핵심 요인은 출생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해당 인구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림 I-28]은 성·연령별 인구이동률과 이동자 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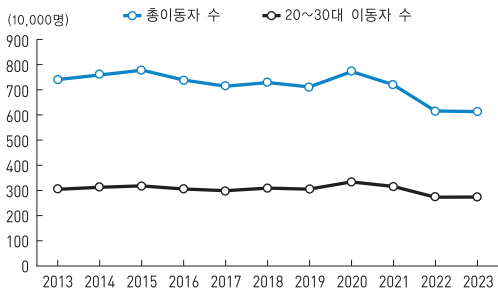
2023년 한국의 연령별 인구이동 양상은 매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다. 20~30대의 이동률이 가장 높고, 이들과 함께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10세 미만의 이동률이 그다음으로 높다. 이후 직장과 주거가 안정되어가는 40대 이후부터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이동률은 지속해서 감소한

다. 20~30대 청년층은 이동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총이동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2023년 총이동자 수 중에서 20~30대 이동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5% 정도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I-28] 성 및 연령별 인구이동률, 이동자 수, 2013-2023
1) 인구이동률(2023년)



2) 이동자 수(2013-2023년)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

그렇다면 이동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0~30대 청년층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표 I-13>은 2023년 17개 시도별 20~30대의 성별 순이동자 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드러나는 20~30대 인구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세 연령집단은 남녀를 불문하고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지역에서는 순유입이,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대 초반의 지역 간 인구이동 사유가 주로 대학 진학과 같은 학업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대도시(부산, 대전)로의 순유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서울과 인천 지역으로의 순유입이 남성에 비해 두 배가량 많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둘째, 25~29세 연령집단도 남녀 간 유사한 양상이 발견되나, 이 집단의 순유입이 발생하는 지역은 다소 상이하다.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순유입이 발생했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했다. 20대 후반의 경우 남녀 모두 학업을 마치고 직업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몰려있는 지역들에 순유입이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이 지역들이 앞서 논의한 '서울-세종(SS 라인)' 주변 지역과 겹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셋째, 30~34세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순유입지 패턴이 25~29세 연령집단과 거의 같게 나타나, 서울이 순유입지에서 순유출지로 바뀌고 전남이 순유출지에서 순유입지로 바뀌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생애 과정상 20대 후반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직업 세계에 뛰어드는 단계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일반적으로 혼인과 출



산, 그리고 이와 연계된 주택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하고,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서울로부터의 순유출 등을 만들어내는 요인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35~39세 연령집단은 30~34세 집단의 생애 연속선상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대규모 순유입지였던 곳이 대규모 순유출지로 바뀌고(예: 서울) 대규모 순유출지였던 지역들이 순유입지로 바뀌거나(예: 대구, 전남, 제주) 순유출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발견된다(예: 부산, 광주,

경남 등). 이는 30대 후반의 경우 직장과 주거뿐 아니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지를 결정하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변수의 다양한 조합이 다양한 지역을 목적지로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지역인구의 '현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20~30대 청년층이, 지역인구의 다가올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가? 이는 지역별 청년층 인구비중과 앞서 살펴본 지역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을 연결지어 보는 과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표 I-14>는 이 세 변수 간에 발견되는 상관관계의 권역 및 시군구별 추이를 보여준다.

먼저 청년층 인구비중과 출생아수의 상관관계는 권역별로 달리 나타난다. 수도권의 경우 시 지역에서는 정비례 관계가 발견되고 그 강도가 최근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군 지역 및 구 지역의 경우 상관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거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 시점, 전 지역에서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발견된다. 즉, 수도권의 경우 청년층 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출생아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관적인 정비례 관계가 발견된다.

청년층 인구비중과 합계출산율 간에도 흥미로운 권역별 차이가 발견되는데, 수도권 시 지역의 경우 2000년에는 두 변수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정비례 관계가 보이나, 2023년에는 상관

<표 I-13> 시도 및 성별 20~30대 순이동자 수, 2023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서울	9,980	19,260	9,963	7,002	-4,311	-6,833	-6,590	-5,755
인천	456	822	1,201	1,178	2,165	2,068	2,907	2,294
경기	1,999	1,145	3,326	579	4,405	5,772	3,448	3,123
강원	-466	-1,636	-1,280	-166	-224	71	96	17
충북	-91	-995	61	146	237	369	141	237
충남	-307	-1,436	1,089	384	869	826	843	629
대전	1,202	326	-123	-232	-230	-247	-371	-171
세종	-217	-44	229	534	466	307	131	149
전북	-1,654	-2,196	-1,586	-960	-315	-343	-78	17
전남	-1,945	-2,485	-1,197	-610	15	356	337	186
광주	-729	-1,134	-1,317	-1,186	-595	-761	-247	-267
제주	-616	-781	-347	-258	-45	78	155	47
경북	-1,447	-3,661	-1,427	-1,214	-630	-330	-418	-452
경남	-4,529	-4,881	-2,567	-1,299	-665	-206	-296	-225
대구	-1,600	-1,488	-2,598	-1,402	-94	62	453	596
울산	-1,021	-1,378	-79	-399	-28	-31	-86	-124
부산	985	562	-3,348	-2,097	-1,020	-1,158	-425	-301

주: 1) 순이동자 수=전입자 수-전출자 수.
 2) 음영은 순유입 지역임.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군 지역에서 는 시점과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가 발견되지 않았고, 구 지역의 경우 청년층 인 구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이 오히 려 낮게 나타나며, 그 경향이 최근 들어 강화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시 지역은 2000년 당시 정비례였던 관계가 2023년 반비례 관계로 변했으며, 군 지역과 구 지역은 여전히 유의미한 정비례 관계가 발견되나 최근 들어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표 I-14〉 지역별 20~30대 청년층 인구비중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상관관계, 2000, 2010, 2023

1) 청년층 인구비중과 출생아 수 상관관계

	시	군	구
수도권			
2000	0.37	0.87	0.26
2010	0.40	0.31	0.33
2023	0.54	-0.63	-0.04
비수도권			
2000	0.71	0.73	0.41
2010	0.70	0.70	0.47
2023	0.76	0.60	0.44

2) 청년층 인구비중과 합계출산율 상관관계

	시	군	구
수도권			
2000	0.58	0.15	-0.07
2010	0.37	0.61	-0.51
2023	0.11	-0.50	-0.49
비수도권			
2000	0.49	0.37	0.76
2010	0.27	0.25	0.52
2023	-0.23	0.22	0.29

주: 1) 통계치는 피어슨 상관계수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결과적으로 지역인구의 ‘미래’로서 청년층은 그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와 함 의가 달라진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역, 특히 수도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출생 간에는 강한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으나, 비수도 권 지역의 경우 최근 그 강도가 약화되긴 했지만 청년층과 출생 사이에는 여전히 유의미한 연결 고리가 발견된다. 이를 앞서 살펴본 청년층의 인 구이동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현실과 다른 가정이지만 수도권으로 이동했던 청년들이 만 약 비수도권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역의 출생 및 인구구조뿐 아니라 전국의 출생 및 인구구조에 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맺음말

오늘날 한국의 지역사회는 전국적인 저출생,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 로 발생하고 있는 인구감소, 인구유출 문제 등 을 동시에 겪는 인구학적 이중고(demographic double jeopardy)를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 로의 인구유출, 그중에서도 20~30대 청년층의 집중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인구의 현재와 미래는 다층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과 같은 인구 축소사회에서 인구집단으로 서의 청년층은 출생과 이동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들



을 정주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이상림 외, 2018).

다만 본 분석을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은 지역사회와 지역인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오늘날 지역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은 출생보다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이라는 사실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출생의 관점에서 지역인구를 설계해야 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지역 간 인구이동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간 인구이동의 주체인 20~30대 청년층의 이동 패턴 및

사유가 세부 연령집단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20대 초반은 주로 학업, 20대 후반은 직업, 30대 초반은 가족 형성과 주거, 그리고 30대 후반은 가족 확대와 정착이라는 차별적 생애과정 수요에 따른 다양한 이동 양상이 나타나는 만큼, 이러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인구 청사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인구학적 쟁점들의 기저에는 수도권 집중 및 팽창이 자리하고 있다(조영태 외, 2024). 이는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을 제시해준다.

참고문헌

- 구양미, 2021.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 국토지리학회지 55(3): 301–320
- 이상림·이지혜·벤하드 코펜(Bernhard Koppen)·임소정·성백선, 2018. 「지역 인구 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희·황영지, 2022. “한국의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확대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 45(2): 105–135.
- 조영태·장대익·장구·서은국·허지원·송길영·주경철, 2024.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 김영사.
- 통계청, 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도자료」. 통계청.